

# KIND

## NEWSLETTER

2021 가을호 | Vol.11

[국토교통부-파라과이 공공사업부 MOU 체결]

5억불 경전철 사업 MOU 체결  
팀코리아, 파라과이 인프라 시장 뚫었다 *p.2*

롱비치 페리터미널 사업 공동개발 MOU 체결 *p.3*

신규입사자 임용 및 신임 사장·감사 취임 *p.4*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10건 신규 선정 *p.7*

2021 K-City Network 용역사 선정 및 사업 착수 *p.7*



# 5억불 경전철 사업 MOU 체결 ... 팀코리아, 파라과이 인프라 시장 뚫었다



국토교통부-파라과이 공공사업부(MOPC) MOU



KIND-FEPASA(파라과이 철도공사) PDA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9일 파라과이 인프라 분야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파라과이 공공사업부(이하 MOPC)와 체결하였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아순시온-으빠까라이 경전철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는 한편 KIND와 파라과이 철도공사(이하 FEPASA)간 '아순시온-으빠까라이 경전철사업' 개발을 위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함으로써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반조건을 구축하였다.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은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과 외곽 으빠까라이를 잇는 도시철도를 투자개발형(Public-Private-Partnership) 방식으로 추진된다.

파라과이 정부는 현재 시설이 낙후되어 운영 중지 상태인 아순시온 철도(1861년 건설)의 시설부지에 현대적인 경전철

도시철도를 건설 및 운영하여 아순시온 일대의 교통 혼잡 문제해결은 물론,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토부, 외교부, KIND 및 민간 건설기업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대표단(수주지원단)은 파라과이를 방문하여 아순시온 철도사업 개발구상 등 사전검토 업무에 KIND-FEPASA간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파라과이 MOPC의 요청에 따라 KIND는 아순시온 철도사업 타당성조사 과업('20.11~'21.6)을 수행하여 총사업비 약 5억불, 연장43km, 역사 7개, 차량기지 1개를 건설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오성의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파라과이 인프라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우리기업이 해외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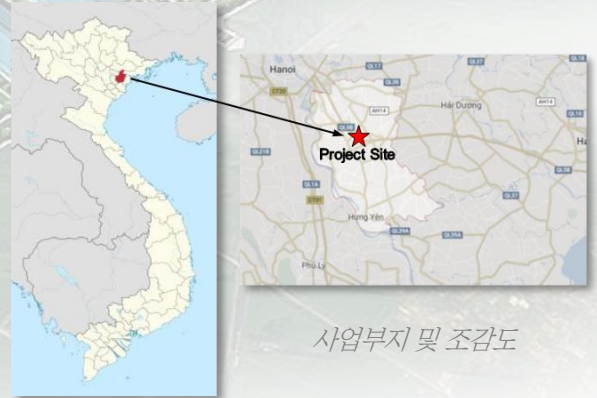
##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지난 9월 7일 KIND는 베트남 흥이엔성으로부터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개발을 추진하는 현지 합작법인의 기업등록증(ERC)을 발급받았다. 기업등록증 발급으로 합작법인이 공식적으로 설립됨에 따라, 9월 말 정관자본금을 납입하고 연내 토지보상 및 산업단지 용지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흥이엔에 143만㎡(약 43만 평) 규모로 건설된다. 사업은 합작법인을 통해 수행되며, 한국 컨소시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 KBI건설, 신한은행이, 베트남 측은 현지 디벨로퍼인 TDH 에코랜드사가 참여한다.

합작법인명은 'VTK Hung Yen Industrial Park Investment and Development LLC'이다. VTK는 'Vietnam Together Korea'의 약자로 베트남과 한국이 함께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을 상징하며, 향후 베트남 내 추진하는 한국형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합작법인에서는 베트남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 입주기업을 위해 현지 인허가, 행정절차, 자금조달 컨설팅 등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50여 개의 한국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약 4억 달러 상당의 우리 기업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업부지 및 조감도

## 롱비치 페리터미널 사업 공동개발 MOU 체결



KIND-한미글로벌-TI Capital 간 MOU 체결식

KIND, 한미글로벌, TI Capital은 7월 20일(현지시간) 미국 Beverly Hilton Hotel에서 미국 롱비치 페리터미널(카탈리나 랜딩) 프로젝트 공동사업개발 및 투자, 운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롱비치 터미널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남서부 항구도시 롱비치에 여객선 터미널과 복합시설을 인수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리노베이션 착공 시기나 사업비 등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협의·결정한다. 향후 KIND는 사업정보 분석 및 재무 구조화 역량을 제공하고, 한미글로벌은 PM/CM/엔지니어링 역량, TI Capital은 사업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 글로벌은 국내 최초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로 다양한 분야에서 책임형 건설관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TI Capital은 한국건설업계 협업 경험이 많은 투자, 개발사로 사모펀드, 부동산, 투자, 금융서비스 및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다국적 투자기업이다.

KIND는 이번 MOU를 통해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한 인프라 복합시설 및 도시개발 분야의 조기성과도출 기반을 마련하고 COVID 회복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대비하여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0/21 인도네시아 EIPP 신수도 계획 수립 4개 과제 최종보고회 성황리 개최



2020/21EIPP 최종보고회

KIND는 '20/21 인도네시아 EIPP 4개 사업 최종보고회(2021년 9월1일 ~ 9일까지 사업별로 진행)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하이브리드 미팅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NAS) 등 인도네시아 정부관계자들은 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였다. 본 행사는 약 1년간 진행된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관련 EIPP 4개 사업의 연구결과를 공유 및 발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300일 동안 KIND와 참여 연구진은 수도이전에 한발짝 다가가기 위해 헌신하였으며, 그들의 노력으로, 2020/21 EIPP 정책자문 및 역량강화연수는 9월 18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 2021/22 EIPP 사업 개시

KIND는 2021년 9월17일 기획재정부와 2021/22 EIPP 총괄기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KIND는 연속성 있게 인도네시아 EIPP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1/22에는 기존사업 연계/고도화 과제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인도네시아 EIPP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사업을 통해 KIND는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명(요약)	수행사
#1	신수도 개발 기본계획 수립	OCS도시건축 컨소시엄
#2	현 수도권 경제발전전략	한국외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3	신수도 자금 조달 방안	삼덕회계법인 컨소시엄
#4	신수도권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	한림대학교 컨소시엄

## 제2차 정책펀드 통합투자플랫폼 개최

2021년 9월 29일, KIND는 제2차 정책펀드 통합투자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해당 플랫폼은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분야에서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본 행사에는 국토교통부와 정책펀드 운용사 5개사가 참석하여 글로벌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제1차 플랫폼에서 발굴된 사업 중 1건을 선정하여 후속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운용사별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사업정보 및 현안을 공유하여 정책펀드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2차 정책펀드 통합투자플랫폼

## 신규입사자 임용 및 신입 사장·감사 취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경력직원과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신입직원 총 9명의 신규입사자가 치열한 채용전형을 거쳐 2021년 7월 26일 KIND에 합류했다. 허경구 사장은 신규입사자들을 따뜻한 축하인사로 맞아주었고, 각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융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격려했다. 새로운 에너지로 한걸음 도약할 KIND가 기대된다.

KIND의 신입 사장으로 이강훈 前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신입 감사로 허태수 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월 29일 취임하였다. 이강훈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해외투자개발사업 플랫폼혁신, ESG경영 도입, 능동적인 조직문화 구현 등을 강조하였다. 허태수 감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비위 적발 중심의 Watch dog 방식 감사에서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Guide dog 방식으로의 방향 전환을 표명하였다.



2021년 경력 및 신입직 9명 채용



제2대 사장, 감사 취임

## 2021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 · KIEP-수은 공동세미나 발표



2021 KIEP-수은 공동세미나

2021년 9월 15일, KIND 용세중국 제 협력 팀 장 은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KIEP)-한국수출입은행 공동세미나 '신남방 주요국의 산업 및 인프라 현황과 진출전략'에 참석하여 '신남방 4개국 인프라 협력 현황과 분야별 협력 수요'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KIND의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살린 발표는 많은 관심을 받아 그 다음주 KIEP 내부 세미나에 초청받아 KIND의 한-방 Joint PPP Platform을 소개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9월 24일, 외교부가 개최한 2021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에 김소은 사업총괄실장이 참석하여 '건설·인프라 주요 프로젝트 및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KIND의 사업 및 청년 중남미 진출 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발표 이후, 청년 참가자들은 열띤 반응을 보여주며 적극적인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2021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

## KIND, KT와 헬스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MOU) 체결

지난 9월 30일, KIND는 KT와 글로벌 보건·의료·디지털헬스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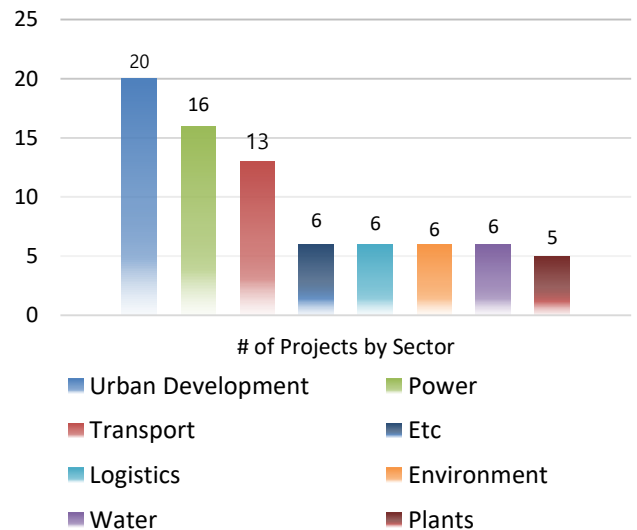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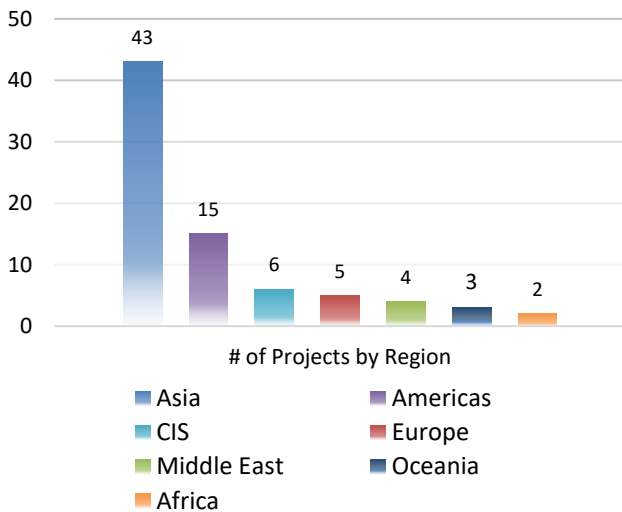
본 협약을 통해 KIND는 KT의 ICT 기술과 시너지를 발휘하여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사업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MOU는 KIND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응하고, 의료분야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KIND 투자 의결: 10개 사업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18.4Q	\$ 15.0M	공사 중
칠레 탈카 태양광	'18.4Q	\$ 6.5M	운영 중
폴란드 폴리머리 폴리체 PDH/PP 화공플랜트	'19.2Q	\$ 57.0M	공사 중
칠레 마리아핀토 태양광	'19.4Q	\$ 3.5M	금융종결 준비
네팔 UT-1 수력발전	'20.2Q	\$ 55.1M	금융종결 준비
칠레 과달루페 태양광	'20.2Q	\$ 3.8M	공사 중
베트남 흥이엔 산업단지	'20.4Q	\$ 4.6M	금융종결 준비
인니 프로볼링고 항만 물류사업	'20.4Q	\$ 1.2M	공사 중
베트남 하노이 사회주택	'21.2Q	\$ 4.6M	금융종결 준비
사우디아라비아 타나지브 열병합발전 사업	'21.2Q	\$ 17.0M	EPC 계약 체결
합계		\$ 168.3M	

## KIND 딜파이프라인: 78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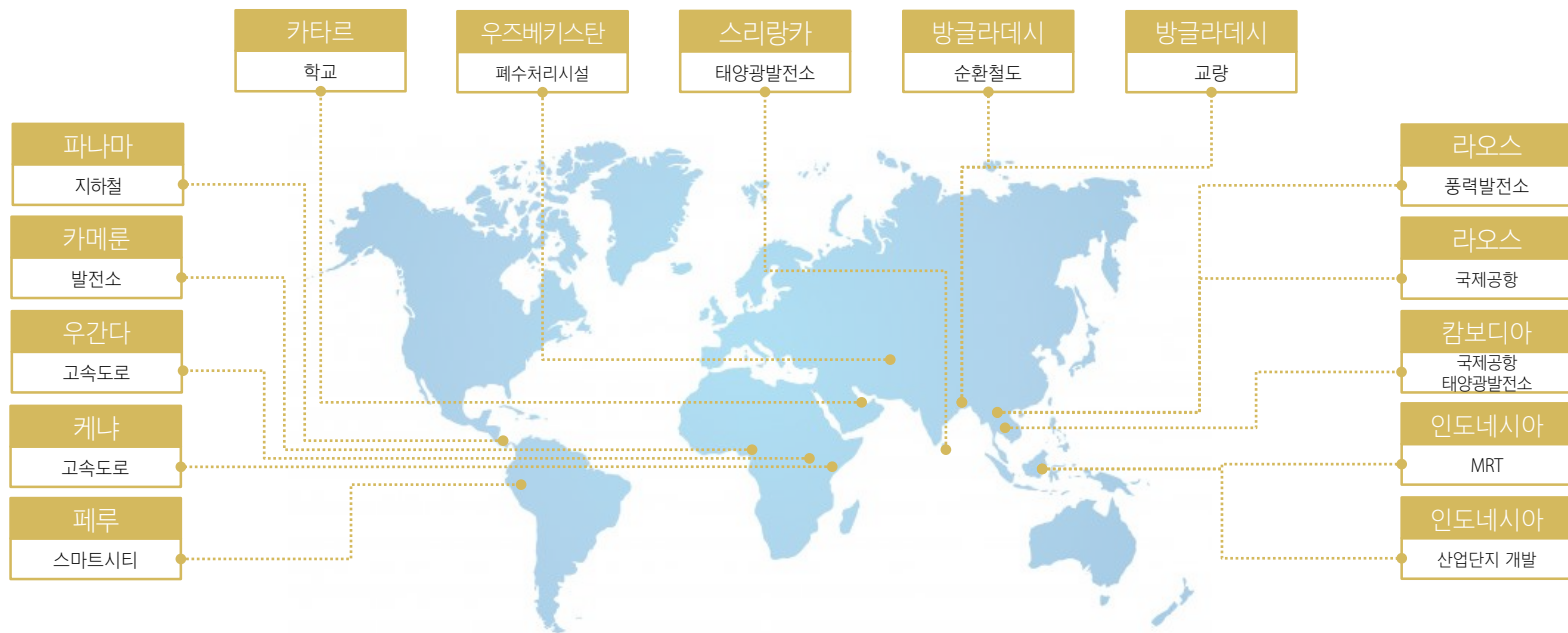
## Plant, Infrastructure, and Smart City (PIS) Fund

Fund	Plant	Infrastructure	Smart city	Proposal-based
펀드규모	₩ 2100억 원	₩ 4500억 원	₩ 2400억 원	₩ 2000억 원
투자자	PIS 모태펀드 및 재무투자자			
빈티지	2020	2020	2020	2020
운용사	한화자산운용	KDB인프라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투자상태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 Global Infrastructure Fund

Fund	GIF 1	GIF 2	GIF 3	GIF 4	GIF 5	GIF 6	GIF 7
투자자	KIND 외						
펀드규모 (KIND 지분)	₩ 500억 원 (67%)	₩ 800억 원 (44%)	₩ 1230억 원 (54%)	₩ 650억 원 (47%)	₩ 1100억 원 (45%)	₩ 1100억 원 (45%)	₩ 1020억 원 (10%)
빈티지	2015	2011	2016	2017	2019	2019	2019
운용사	KDB인프라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KDB인프라자산운용	KDB인프라자산운용	KB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투자상태	완료	완료	완료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 10건 신규 선정 (현행 사업 15건, 2021년 3분기 기준)



KIND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해외인프라 발굴 및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3분기에는 10개의 사업이 신규로 선정되었다. 2021년 KIND가 지원하고 있는 총 15개 사업 중 10개의 사업이 정기 공모를 거쳐 국내 사업제안자(해외건설업자)를 통해 신청되었으며, 5개 사업은 CABEI(MDB)와 같은 KIND의 글로벌 파트너를 통해 발굴되었다.

F/S 지원을 통해, KIND는 사업제안자와 함께 사업개발 기회를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 금년도 마지막 분기에는 특히 제안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F/S 지원사업을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개선사항은 추후 11월경 개최될 F/S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KIND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 2021 K-City Network 용역사 선정 및 사업 착수 실시

국가	사업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남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및 예비타당성 조사
케냐	나이로비 중앙역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인도네시아	클락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필리핀	신수도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KIND는 지난 7월30일부터 8월17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21 K-City Network 도시개발형 사업을 수행할 용역사(도화 엔지니어링 컨소시엄, 한국토지주택공사 컨소시엄 등)를 선정하였다.

KIND는 용역 계약 체결 이후 지난 9월 9일과 14일, 양일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착수보고회에는 해외정부, 국토교통부, KIND, 용역사가 참석하였다.

착수 대상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남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및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케냐 나이로비 중앙역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필리핀 클락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이며, 인도네시아 사업은 유일하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금년에 새롭게 진행되는 K-City Network 지원 사업은 모두 내년 4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2021 K-City Network 인도네시아 사업 착수보고회

# Join us at

## GICC 2021

Seoul, Korea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Hosted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ganized by  ICAK



Supported b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KIND 주요 언론 보도

- [Infrastructure ministry to help Paraguay upgrade light rail transit system](#)
- [K-건설 팀코리아, 파라과이·방글라데시서 힘모은다](#)
- [10년 만에 찾아온 해외 PPP '대박'...건설업계, 올해 80억 달러 수주 눈앞](#)
- [해외 친환경·인프라 투자 기업에 금리 최대 1%포인트 인하](#)

### 편집부 연락처

-  [hansol.jung@kindkorea.or.kr](mailto:hansol.jung@kindkorea.or.kr)  
[hyesungji@kindkorea.or.kr](mailto:hyesungji@kindkorea.or.kr)
-  [www.kindkorea.or.kr](http://www.kindkorea.or.kr)
-  +82-2-6746-7384  
+82-2-6746-7474